

# 이 유

## 1. 당사자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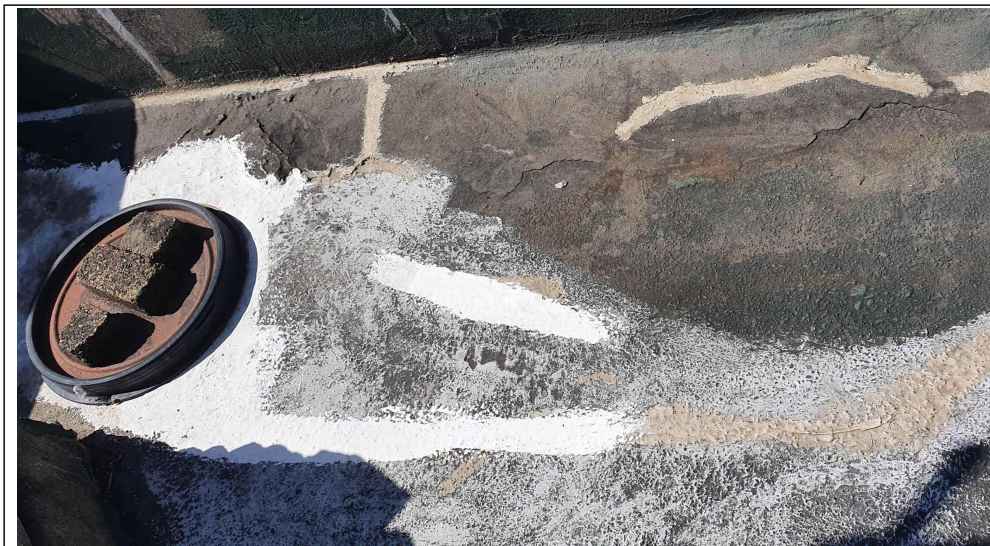
### 가. 신청인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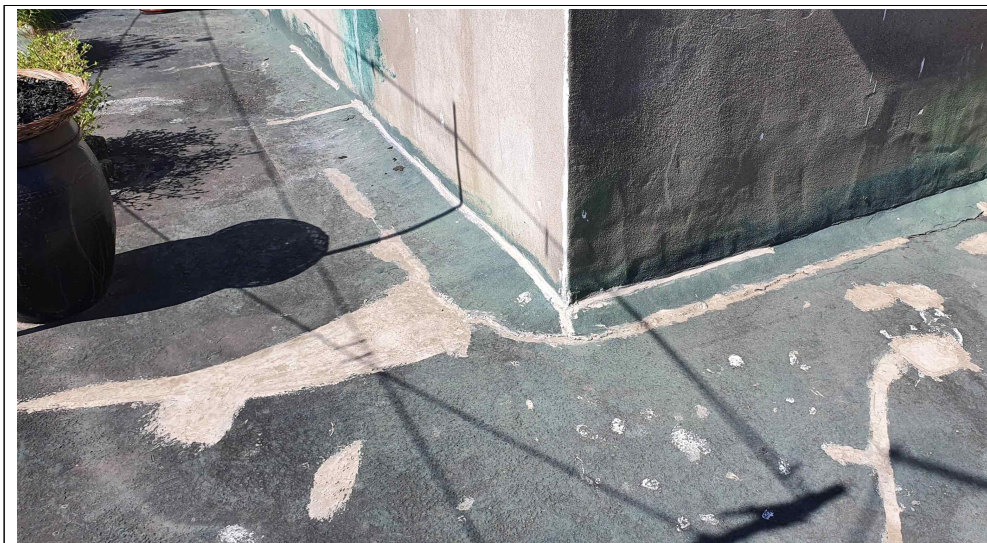
- 올 1월 7일 폭설로 누수가 발생 ○○건설 재건축과정에서 작년 2020년 5월부터 2020년 말까지 지반공사로 균열, 소음 발생하였음
- ○○건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주식회사 ○○의 ○○○ 대리에게 전화하였음
- 전화하니 현장 사무실로 하라고 해서 현장사무실로 전화함
- 현장직원이 집 방문해서 피해 입은 것 설명하였음
- 그리고 ○○건설 직원회의 끝에 피해 준 것이 없다고 함
- 2021년 2월 8일 ○○구청 주택과 ○○○에게 민원 신청하여 2021년 3월 2일 건설사 직원과 함께 방문, 집 둘러보고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주고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피해주장 현황

- 지반공사로 인해 누수 균열 소음
- 옥상바닥, 누수균열 안방 작은방 누수







## - 1층 점포 샷시출입문 열쇠파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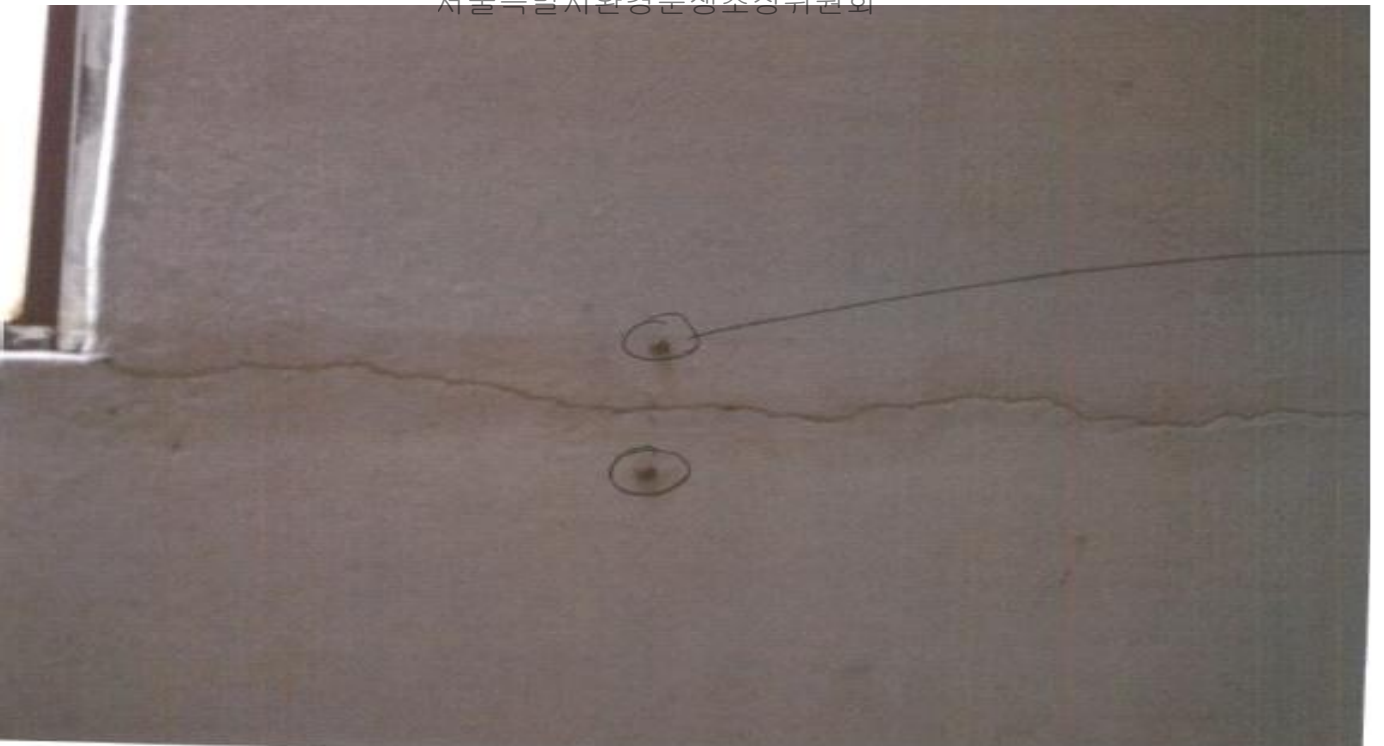


## - 지하실 균열, 누수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나. 피신청인 주장

- 해당 공사는 2020년 1월 기존 건물철거를 시작하고 4월에 착공 신고하여 2023년 6월에 준공되는 공사 현장임
- 철거공사는 ○○교 골목시장과 접해있는 기존 건물 철거를 20년 1월에 우선 진행하였고 당시 피해지점까지의 이격 거리 중 최단거리가 약 20m정도로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주기에는 거리가 상당함
- 신청인 건물과 접해있는 ○○교 골목시장면 철거공사 시점은 2020년 4월 협의 후 4월말 진행 하였으며, 이격거리는 최소거리가 약20m 정도로 이 또한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당 현장은 화약물을 사용한 일체의 발파작업이 없었으며 공사 진행 중 ○○구청에서 진동, 소음, 먼지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은바가 없었음

### ◎ 먼지, 소음에 관한 의견

- 철거 전 소음, 분진방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웬스를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건물은 직선 거리 중 최단거리가 20m, ○○교 시장 등을 경유한 지점에 있는 건물로서 먼지, 소음에 관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장에서는 철거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1차적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현장 내부 및 외부 수시 살수차 운영, 세륜기 설치 및 고압살수기 운영 등 조치를 취하였고 폐기물 야적시 덮개를 설치하였음
- 당 현장은 일반 방음벽 설치 기준(2~5m)보다 높은 6~8m 방음벽 웬스를 설치하였으며, 해당 ○○교 시장면은 가장 높은 8m 방음벽 웬스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주간 당 현장 소음 측정결과 65db미만으로 측정되었으며, 피해지점에서의 소음측정결과 55db로 평상시 주거지역 생활 소음정도에 미치지 않음

### ◎ 진동, 누수에 관한 의견

- 당 현장은 2020년 2월 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 “(주)○○”에 의뢰

하여 현장에 인접한 ‘인접건물 46개동 및 현장인접도로, 구조물’에 대한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였음

- 피해지점의 경우 사전현황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지점의 대다수는 사전현황조사에서 파악된 지점으로 당사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 건물의 경우 1984년 6월에 사용이 승인된 건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1년 1월 7일 폭설 이후 즉각적인 제설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기존 균열에 스며든 물이 동결 팽창하여 지속적으로 균열이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안내한 바 있음
- 2021년 1월 25일 피해지점 방문하여 확인결과, 옥상 방수작업을 실시한지 오랜시간이 경과하였으며, 누수구간 상부 배수구 존재 및 주변 구간 파손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안내한 바 있음
- 2021년 3월 4일 피해자가 ○○구청 주택과에 민원 제기하여 담당 주무관과 피해지점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문하여 확인 작업 재진행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옥상에 불법 증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건물에 설계보다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을 것으로 예상됨
- 당 현장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12개월 간 주간 계측관리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피해지점도 계측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계측을 통해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음
- 피해지점에 설치된 건물경사계와 균열 측정계의 DATA 및 그래프는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당 현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환경피해예방 대책 시행 현황

	
방음웬스	살수차
	
방진시설	세륜시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3. 사실조사 결과

#### 가. 분쟁지역 현황

##### ○ 분쟁개황도



## 나.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위 치 : ○○구 ○○로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47.9m^2$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1가구)
-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점포,주택
- 구 조 : 조적조
- 사용승인 : 1984.6.5.

비공개

당사자 건물 현황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 사 명 : ○○
- 위 치 : ○○구 ○○동 ○○일대
- 연 면 적 :  $142,043m^2$
- 규 모 : 지하2층, 지상35층
- 공사기간 : 2020.3.~2023.7.
- 시 공 자 : ○○건설(주)

##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

-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민원이 120을 통해 관할구청(환경과)에 14차례 제기되어 소음발생 유의, 세륜 철저 등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

## 마. 현장 조사내용

### 1) 신청인 의견

- 공사 이후 소음 진동 피해에 시달렸고 구청에 민원을 여러 번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 특히 벽면에 균열이 가 작년에 새로 도배한 벽지가 찢어지고 방수페인트가 떨어져 나가 누수가 생겼으며 대문 옆 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다.
- 기존 벽면의 균열도 공사 이후 더 벌어져 있어 ○○건설측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공사피해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2) 피신청인 의견

- 공사현장은 발파나 암반 작업이 없어 큰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일이 없었다.
- 신청인의 건물 균열 주장도 워낙 노후 건물인데다 2021년 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바로 제설하지 않아 생긴 균열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가. 소음 피해 평가

-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을 바탕으로 기간별 건설장비 투입대수와 합성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2020.3.26 방음벽 설치작업 이전 철거공사 시 약 5dB(A), 방음벽 설치작업 이후 철거공사시 및 토목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시 약 10dB(A)의 감쇠특성을 반영함

### 나. 진동 피해 평가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는 발파, 항타 작업이 없었고 투입장비의 진동레벨은 7.5m 이격된 지점에서 최고 61.1dB(V)이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먼지 피해 평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일시적인 토사먼지 발생이나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건축물 피해 평가

- 피신청인 공사장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작용한 진동과 “신청인 소유건물에 현존 하는 결함”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만을 그 평가범위로 하였다.
-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을 2020.1부터 2020.6까지 하였으며, 백호우, 덤프트럭을 사용하였으며, 토목공사 및 파일공사 시 사용한 장비는 천공기(오거), 백호우, 덤프트럭, 패이로더 등이며, 최단 이격거리는 15.1m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작업시 사용한 주요 진동장비는 백호우, 천공기(오거) 등으로 진동속도 추정은 피신청인의 공사시 사용한 장비 중 진동이 제일 심한 천공기(오거) 사용시 진동속도를 추정하기로 하였다.
- 이격거리15.1m에서 항타기 사용시 최대 진동도 : 56.81dB(V)
- 최대진동속도(VL) : 0.041cm/sec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추정 최대진동속도는 신청인건물에서 0.064cm/sec로, 노후화된 조적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35cm/sec이하로 산출되었다.

## 5. 인과관계 검토

###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신청인 거주자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68dB(A)로 평가되어 주거 지역 수인한도인 65dB(A)를 최대 3dB(A)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나. 진동 피해 평가

- 통상의 공사 사례 및 사용 장비의 진동 값을 고려해 볼 때, 생활 진동 규제기준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어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 먼지 피해 평가

- 통상의 공사사례를 볼 때,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먼지 및 공사먼지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라. 건축물 피해 평가

- 피신청인 작업으로 인한 추정 최대진동속도는 건물에서 0.041cm/sec로 노후화된 연와조 건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0.35cm/sec 이하로, 신청인 건물이 피신청인 공사장의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배상수준 검토

##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신청인 ○○○ 등 3명에게 배상한다.

## 다. 배상금액 검토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095,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3,3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098,300원이다.
- 공사장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 1,095,000원
  - ▶ 365,000원[68일/3월이내, 1~5dB(A)] × 3명  
= 1,095,00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3,300원
  - ▶ (365,000원 × 0.3%) × 3명  
= 3,300원

##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 현지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